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2023 실크로드 문명아카데미 제3기

제1강
3월 21일(화)
오후 7시-9시

실크로드와 축제의 길: 나브루즈



강사: **김중순** 교수

계명대학교 독문과를 졸업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비교종교학 석사 학위를, 짜르부뤼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계명대학교 명예교수로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제 저널 *Acta Koreana* 와 *Acta Via Serica*의 편집장을 겸하고 있다. 샤머니즘을 비롯한 고대종교와 문명교류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Birdman: Pathfinder of Korean Shamanism*, 『문화의 이해와 다문화교육』, 『이슬람, 그 반역의 역사』, 『횡으로 읽는 문명 이야기: 중반구와 글로벌 르네상스』 등이 있다.

Homo Ludens. 인간은 놀이하는 동물이다. 이것이 확장되면 축제하는 인간 Homo Festivus 가 되고, 제사하는 인간 Homo Ritualis가 된다. 실크로드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놀이와 축제와 제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나브루즈(Navruz)이다. 지역에 따라서 네브루즈(Nevruz) 혹은 나루즈(Naruz)라고도 불리는 이 축제는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즐긴다. 이슬람 국가들의 공통분모인 것으로 보이지만, 기독교가 강세인 조지아나 아르메니아에서도 지켜지는 중요한 축제이다. 페르시아, 투르크, 아랍계 민족의 경계도 뛰어 넘는다. 따라서 이는 종교가 형태를 이루기 전부터, 민족 중심의 국가가 형성되기 전부터 있어 왔던 원천적인 문화 형태였음에 틀림없다.

나브루즈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春分)에 이루어진다. 실크로드 사람들은 그날에 따듯함과 밝음이 등장하여 긴 겨울의 추위와 어두움을 물리치며 새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믿는다. 여기에는 세상을 밝음과 어두움의 이분법적 구조로 읽어내려는 고대인들의 지혜가 담겨있다.